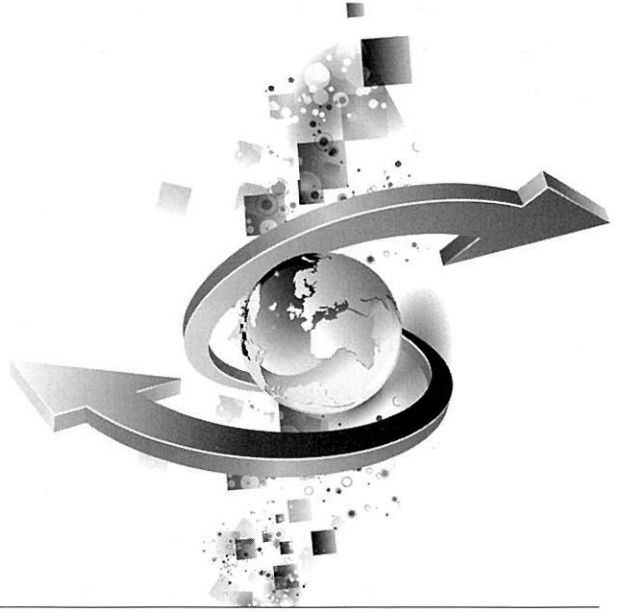


# 제21차 ASTAP 회의

정삼영 국립전파연구원 공업연구관  
강석규 TTA 통신융합부 선임연구원



## 1. 머리말

아태전기통신협의체(APT: ASIA-Pacific Telecommunity)는 1979년 UN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의 결의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 관련 지역기구로서, 역내 국가 간 정보통신망 계획 및 상호조정, 회원국에 공동 이익이 되는 정보통신기술 개발, 정보통신 관련 정보 및 전문가의 교류 촉진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ASTAP(APT Standardization Program) 포럼은 APT의 8개 작업 프로그램(Work Program)의 하나로 전기통신 표준화 관련 아태지역 차원의 협력활동과 ITU-T 상위그룹의 표준화 활동과의 조화로운 추진을 목적으로 1998년에 설립된 표준화 관련 협의체이다.

2013년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1차 ASTAP 회의는 24개 회원국, 회원사에서 총 179명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는 국립전파연구원, ETRI, 한국생산기술연구원, TTA 등에서 26명이(국가대표 14명, 회원사대표 12명) 참가했다.

이번 21차 회의는 일본에서 제안한 적합성 및 상호

연동성(Conformity&Interoperability) 이벤트 개최 준비 안건을 검토하고, 한국이 주도해 작성한 APT 특허정책 및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일부 ASTAP 산하 그룹 명칭 및 작업범위 변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밖에 ITU-T 리뷰 위원회(Review Committee) 운영 및 참여방안, 전자폐기물 및 희소금속 관리 차기 ASTAP 워크숍 주제에 관한 회원국 간 논의가 있었다.

## 2. 주요 회의 내용

### 2.1 적합성 및 상호연동성(Conformity&Interoperability) 이벤트 개최 계획

이벤트 개최 건은 지난 2012년 11월 APT MC-36 회의에서 승인되었으며, 이번 회의에서 일본은 C&I 이벤트를 2013년 9월에 개최되는 제22차 ASTAP 회의와 연계해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안건의 승인과 아울러 개최 분야, 개최 방법 등의 세부사항이 추가로 논의되었다. 본 이벤트는 APT 회원국 간 적합성 및 상호호환성 이슈 해결책을 모색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해

결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이베트는 오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태국 방콕에서 제22차 ASTAP 회의 직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ITU-T 권고에 기반해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적합성 및 상호연동성을 테스트하고, 기술 워크숍 및 제품 쇼케이스 등 다양한 행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회의 기간 중 논의된 주요 대상 기술로는 HTML5, 스마트TV, NGN, 디지털사이니지, SDN, M2M/IoT 등이 있으며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이베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운영 위원회가 제안되어 일본이 의장을 맡게 되었으며, 위원은 3월 말까지 제안을 받아 구성될 예정이다. 국내는 TTA에서 Wi-Fi, 모바일 시스템, KCA에서 M2M 시험인증센터 차원의 대응, ETRI는 M2M, SDN 분야, 산업체는 삼성전자, LG 전자 등에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2.2 APT 특허정책 및 가이드라인 개정안 승인

한국 ETRI 이병남 박사가 주도해 작성한 APT 특허정책 및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이번 ASTAP 회의에서 재승인되었다. 지난 ASTAP 20차 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APT MC 36차 회의에 제출된 APT 특허정책 및 가이드라인은 MC 회의에서 대응그룹(Correspondence Group)의 리뷰 이후 37차 MC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미 제출된 특허정책 가이드라인은 2007년 ITU/ISO/IEC 공통 특허정책을 기반으로 작성되어, 최근 개정된 ITU/ISO/IEC 공통 특허정책을 새롭게 반영해 정책규제전략 그룹 의장이 다시 제출하게 되었다. 제출된 개정안은 회의에서 합의되어 총회에서 최종 승인되었으며, APT 총장이 차기 MC에 ASTAP 21의 결과물로 보고함으로써 개정안 승인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 2.3 ASTAP 산하 그룹의 작업 영역 확대

이번 21차 ASTAP 회의에서는 스마트 그리드 작업반

의 명칭과 작업범위(ToR)가 변경되었다. 스마트그리드 작업반 의장직 수행을 하고 있는 일본은 작업범위로 M2M 응용 및 서비스와 이헬스의 추가를 제안했으며, 회의에서 협의과정을 통해 작업반의 명칭을 M2M 작업반으로 변경하고 관련 ToR에 이헬스와 M2M 응용 분야를 신규로 추가하였다. 이 외에도 스마트 그리드 작업반은 정보공유를 위해 스마트 그리드 응용사례 설문조사의 실시와 이 헬스 사례에 대한 백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일본은 기존 NGN 전문가 그룹의 명칭과 ToR 변경을 제안했으나, 기존 NGN 전문가 그룹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되, 관련 작업범위에 미래 네트워크(Future network)와 SDN을 신규 추가하는 것으로 논의되어 승인되었다. 이밖에 인터넷 분야 전문가 그룹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표준화 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ToR을 수정했으며, 총회에서 승인되었다.

## 2.4 기후변화 대응 전자폐기물 이슈의 관심 고조

ICT&기후변화 작업반에서는 아태지역 회원국의 정보교류와 관심확대를 위해 그린 데이터센터 표준화 등 26개 연구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금번 회의에서는 연구과제 중 ICT 제품 라이프사이클 평가방법, ICT 제품 전원 충전단자, 희소금속 관리 3개 분야의 결과물이 발표되었다. 본 결과물을 포함해 '그린 ICT 표준화의 가이드'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서 APT 보고서로 승인을 받았다. ICT 기후변화 작업반에서는 WTSA-12에서 승인된 전자포럼의 설립 추진을 위한 ITU-T의 활동 현황 소개가 있었으며, 성공적인 포럼 도입을 위해 아태지역의 의견 및 아이디어 개진이 요청되었다. 한국이 본 아이템의 라포트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으며, 차기 9월 회의까지 아태지역의 의견을 정리하여 11월 개최 예정인 ITU-T SG5 회의에 제안하기로 했다. 아태지역에서 ICT 분야 기후변화의 대응과 관련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분야는 전자폐기물 이슈이다. 20차 ASTAP 회의에서 태국 정부는 전자폐

기물 관리를 위한 각국의 정책 및 제도의 현황 파악을 제안하여 회람용 질의서가 금번 회의에서 완성됐으며 5월 말까지 APT 회원국에 회람하여 답변을 받기로 했다. 전자폐기물 이슈는 특히, ASTAP 21차 자문위원회에서도 향후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선정했으며, 금번 회의에서도 휴대폰 재사용 정책 및 전자폐기물 관리 현황, 희소금속의 재활용 등에 대한 발표에 참석자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다. 향후 발표내용과 질의서 등을 포함해 아태지역 전자폐기물 관리 및 정책 현황 보고서를 발간하고, 아태지역의 협력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 2.5 ITU-T 리뷰위원회 활동 등

WTSA-12에서 제정된 결의 82에 따라 ITU-T의 미래 구조와 전략을 논의하고자 설립된 리뷰 위원회에 대해 일본 TTC 마에다의 설명과 한국의 협력에 감사하다는 언급이 있었다. 리뷰 위원회는 전기통신 표준화 부분의 미래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니만큼 국내의 준비와 적절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한국은 차기 ASTAP 산업 워크숍의 주제로 희소금속 및 전자폐기물 관리를 제안했고, ASTAP 회원국 간에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산업워크숍은 1년에 1회 개최되는 것으로 최종 승인은 22차 ASTAP 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표준화격차 해소 작업반에서는 일본이 개도국의 ICT 분야 지원 사업인 사례연구팀 프로젝트(Case Study Team Project)의 활동 현황을 소개하였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구축한 무인 화재감시와 기후정보 수집 시스템 구축 현황이 소개되었으며, 향후 개도국 오지 지역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ICT 솔루션 참조모델 가이드라인 핸드북' 작성을 일본이 제안해 차기 회의부터 개발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3. 맺음말

ASTAP 21차 회의 이후 주요 분야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9월 방콕에서 개최되는 C&I 이벤트는 국내 관련 시험인증센터와 제조사 및 연구소 등이 협력하여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표준화격차해소 작업반에서 추진하는 'ICT 솔루션 참조모델 가이드라인 핸드북' 작성에는 RRA, KISDI, KISA 등이 추진하고 있는 실적이 소개되어 우리나라의 개도국 협력의 노력이 회원국에 전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M2M과 이헬스가 스마트그리드 작업반에 포함되었으며, SDN 분야가 NGN 전문가 그룹에 포함되는 등 일본의 신기술 분야의 ASTAP 활용 전략에 대응해 우선 국내 전문가의 참여와 미래 전략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차기 회의 ASTAP 22는 C&I 이벤트와 함께 9월 9일부터 14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